



산타마을 '담양 메타 프로방스' 18일 담양군 담양읍 메타 프로방스에서 '2017담양산타축제'를 알리는 은은한 조명과 화려한 장식이 눈길을 끌고 있다. 행사는 담양 원도심과 메타프로방스 일원에서 '산타와 나누는 담양 겨울이야기'란 주제로 오는 31일까지 열린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친자식 폭행·살해·유기...자격 없는 부모들

리뷰 2017 그 사건

<2> 아동 학대

‘살해 후 유기’, ‘폭행으로 인한 실명’ 올해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2건의 아동 학대 사건은 지역민을 경악케했다. 광양의 ‘인면수심’(人面獸心) 20대 부모는 두 살배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아산에 유기했다. 목포에서는 동거녀의 5살 난 아들을 수차례 폭행하고 방치해 실명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살 아들 살해·유기=지난 2월 광양경찰은 둘째 아들(2)을 살해한 뒤 시신을 버린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폭행치사)로 20대 아버지 강모(26)씨를 구속하고 이를 목격한 혐의로 아내 서모(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의 범행은 “강씨가 아들을 살해한 것 같다”는 강씨 부부의 지인 제보로 2년3개월 만에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강씨

광양 20대, 두살 아들 살해 후 아산 유기...정역 20년형 목포 5세 男, 친모 동거남에 맞아 실명...아동기관서 보호

는 2014년 11월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집에 이틀 동안 방치했다가 여수지역 바닷가 아산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같은 달 23일 오전 강씨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밝힌 여수 모 해수욕장 인근 아산을 수색했지만 결국 주검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서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아들의 사망사실을 숨긴 채 2014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300여만 원의 양육수당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져 공분을 샀다. 또 큰아들(6)과 친구로부터 양육을 부탁받은 1살 된 여아까지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월9일 광주고법에서는 강씨에게 징역 20년, 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숨진 아동의 시신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수차례 폭행으로 아동 실명=경찰의 치밀한 수사만 있었더라면 ‘5세 어린이’의 실명(失明)까지는 막을 수 있었다. 목포 아동 학대사건은 경찰의 안일한 대처와 부모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발단이 됐다.

광주 조선대학교병원 의사는 지난해 9월 28일 팔이 부러져 입원한 A(5)군이 아동학대를 당한 것 같다고 신고한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에 나섰고 “새벽에 배란대에서 자전거를 타다 다쳤다”는 진모(35)씨의 진술이 의심스럽다고 판단, 목포경찰에 수사 요청을 한다. 하지만 아동보호기관측이 ‘안전사고인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해 수사는 중단됐다.

사건 이후 한 달도 채 안 된 같은해 10월 10일 A군은 친모의 동거남 이모(27)씨로부터 또다시 무차별 폭행을 당한다. 팔이 부러졌을 때를 포함한 8번째였다. A군은 간 손상과 담도관 파열 등 내상도 입었지만 부모는 10여일간 방치했다. A군은 10월29일 전남대병원에 입원했지만 오랜 기간 방치한 탓에 왼쪽 눈은 결국 실명했다.

전남대병원 의료진의 신고로 시작된 경찰 조사에서 A군은 끝까지 비정한 친엄마를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A군은 경찰에서 “맛을 때어도 엄마를 걱정해 고통을 참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올해 7월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8년을, 최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행위에 미치지 않았지만, 그에 버금가는 행위로 판단된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현재 아동보호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A군은 쾌활한 성격 덕분에 웃음은 되찾았지만 하루빨리 엄마와 함께 살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6 해질 17:23
 해돋이 08:01 해질 18:21

전남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하겠으나 산발 등 화재에 유의하세요.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0/5	보성	맑음	-3/5
목포	구름 많음	1/5	순천	맑음	0/4
여수	맑음	1/6	영광	맑음	-1/4
나주	맑음	-3/5	진도	구름 많음	0/5
완도	구름 많음	3/6	전주	맑음	-2/2
구례	맑음	-2/4	군산	맑음	-3/2
강진	맑음	0/6	남원	맑음	-4/2
해남	맑음	1/6	축산도	구름 많음	3/5
장성	맑음	-2/4			

◇바다 날씨

시해	남부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해	북서~북	1.5~3.0	북서~북	1.0~2.5
남해	남해	북서~북	2.0~4.0	북서~북	1.5~3.0
남해	남해	북서~북	0.5~1.5	북서~북	0.5~1.5
남해	남해	북서~북	1.0~2.0	북서~북	1.0~2.0
남해	남해	북서~북	2.0~3.0	북서~북	2.0~3.0

◇생활지수

눈	높음
뇌졸중	높음
감기	보통
미세먼지	보통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7:47	02:24
여수	20:26	15:10
	03:13	09:53
	15:27	21:45

◇주간 날씨

20(수)	21(목)	22(금)	23(토)	24(일)	25(월)	26(화)
☁	☁	☁	☁	☁	☁	☁
-3/6	-2/7	-2/7	-3/8	3/8	0/8	-1/7

광주·전남경찰청 5명 총경 승진

경찰청은 18일 호남 출신 4명을 포함한 총경급 14명을 경무관 승진 예정자로 내정했다.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서는 모두 5명이 총경 승진 예정자 명단에 포함됐다.

본청에서는 이충호 범죄예방정책과장, 유진규 홍보담당관, 윤동춘 경무담당관, 이훈 정보2과장, 남구준 형사과장, 김순호 보안과장, 김학관 기획조정담당관, 박형길 정보4과장까지 8명이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 계급을 달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김충보 교통안전과장, 김갑식 수사과장, 손장목 경무과장, 허찬 경비1과장이 승진했다. 고

기철 경기남부청 형사과장, 박경수 부산청 경무과장도 경무관으로 진급했다.

이 중 호남 출신은 김충보·김순호·박형길 과장 등 4명, 영남 5명, 충청 3명, 수도권 등 기타지역 2명으로 알려졌다.

경정급 86명의 총경 승진인사도 이날 진행됐다. 총경은 본청·지방청 과장 또는 일선 경찰서장급이다.

광주지방경찰청에서는 조영일 교통안전계장, 국승인 강력계장, 차복영 경무계장이, 전남지방경찰청에서는 조장식 교통안전계장, 임준영 경무계장이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을 달게 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조선대 임시이사 3명 추가 선임

전원 대학교수에 2명은 여성...임시이사회 구성 완료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임시이사 3명을 추가로 선정함에 따라 사실상 임시이사회 구성이 완료됐다.

18일 조선대에 따르면 사분위는 이날 서울교대에서 회의를 열어 학교법인 조선대의 전체 9명의 임시이사 가운데 나머지 3명의 후보를 선정했다.

이들 후보 3명은 김선미 광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박관석 목포대 경제학부 교

수, 박상희 광산대 유아교육과 교수 등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교육부의 신원조회를 거쳐 문제가 없으면 공식 선임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4일 사분위가 선정한 조선대 임시이사 6명을 공식 선임했다.

예초 교육부는 임시이사 9명의 후보를 2배수 추천했으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성별 등 후보의 다양성을 보완해야 한다며 6명만 선정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더드림동구 택배’ 노인 일자리 창출

학동·계림동 등 5개 아파트 15명 참여...입주민 만족도 높아

광주시 동구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더드림동구 택배사업’이 노인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효과를 내고 있다.

18일 동구에 따르면 ‘더드림동구 택배사업’은 아파트단지 내 빈 공간에 택배보관함을 설치하고 어르신들이 택배회사로부터 물건을 인수해 가정에 직접 배달하는 사업이다.

현재 학2마을·계림금호·두산위브·호반베르디움2차·두암그린아파트 등 5개

아파트에서 어르신 15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1인당 인건비로 월 25만~35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주민 김미정(여·51)씨는 “과거에는 택배사원이 바쁠 경우 연락 없이 경비실에 맡기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집까지 배달해줘 편리하면서도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어 좋다”며 만족을 표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편의점 햄버거, 나트륨·지방 과다

소비자원 조사...상위 5곳 1일 기준치 50% 넘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햄버거 1개의 나트륨과 지방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가맹점 상위 5대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ストップ, 위드미)에서 판매하는 햄버거 3종(불고기버거, 치즈버거, 치킨버거), 14개 제품을 상대로 안전성과 품질을 시험·평가했다고 18일 밝혔다.

편의점 햄버거 평균 나트륨 함량은

994.6mg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2000mg)의 50% 수준이었다.

나트륨과 지방 함량은 높았던 반면 식이섬유나 탄수화물 함량은 적었다.

평균 탄수화물 함량은 56.4g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324g)의 17%. 평균 식이섬유 함량은 3.9g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25g)의 16% 수준이었다. 또, 영양성분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도 상당수였다. /김용희기자 kimyh@

금남새마을금고와 든든한 미래를 위한 약속

회원의 소중한 꿈이 담긴 자산! MG금남새마을금고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정기예탁금

1년 최고 **2.4%**

정기적금

1년	2년	3년
2.2%	2.3%	2.4%

입출금이 자유로운
자신만만 자유예탁금

단 하루를 맡겨도
최고 **1.6%**
(금액에 따라 이율 차등 적용)

MG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 223-8007, 232-7251 총장지점 ☎ 223-7217, 223-7218

2017년 한 해 동안 금남새마을금고를 이용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술년 새해에도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지향하며 고객 여러분의 꿈을 지켜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